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해

양 목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우리 말의 어휘도 더 늘어 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5페이지)

사회의 변화발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합성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합성어에 대한 연구는 어휘론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여기서는 합성어를 단어결합과의 관계속에서 보기로 한다.

합성어에 대한 이해를 단어결합과의 관계속에서 보는것은 합성어와 단어결합이 다 자립적인 단어들의 결합으로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언어실천에서 이 언어적단위들을 어떻게 구분하여 보겠는가 하는데서 적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기때문이다.

실례로 단어 《바로》와 결합된 결합단어들 가운데서 《바로잡다, 바로되다》는 합성어로, 《바로 입다, 바로 신다, 바로세우다》등은 단어결합으로 보고있다.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공통점은 두개 이상의 말뿌리나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공고한 결합이라는데 있다.

합성어와 단어결합은 두개이상의 말뿌리나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결합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일련의 차이점도 가지고있다.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차이는 첫째로, 언어적단위가 서로 다른데서 찾아볼수 있다.

합성어는 여러개의 단어들의 결합이지만 하나의 단어인것으로 하여 어휘론의 연구대상이라하면 단어결합은 여러개의 단어들의 의미-문법적맞물림인것으로 하여 문장론의

연구대상이다.

다시말하여 합성어는 두개이상의 단어나 말뿌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공고한 단어로 되는것으로 하여 어휘론적단위에 속하고 단어결합은 두개이상의 자립적인 단어들이 결합하여 두개이상의 자립적인 성분적단위로 되는것으로 하여 문장론적단위에 속한다.

합성어는 아무리 여러개의 단어나 말뿌리들이 결합된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단어를 넘지 못하고 단어결합은 두개이상의 단어로 결합되여도 문장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성분적단위를 이루므로 다 자립적인 단어로 된다.

례: ① 그는 어제저녁에 받은 편지를 책갈피에 넣었다가 오늘 아침에야 김동무에게 전해주었다.

② 그는 어제저녁에 받은 편지를 책의 갈피(책갈피)에 넣었다가 오늘 아침에야 김동무에게 전해주었다.

우의 실례에서 단어 《책》과 《갈피》가 ①에서는 합성어인 《책갈피》로, ②에서는 단어결합인 《책의 갈피》로 쓰여있다. 즉 같은 단어들이 경우도 서로 다른 언어적단위로 쓰이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개이상의 말뿌리나 단어들이 결합되여 처음에는 단어결합으로 쓰이다가 그 의미가 공고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합성어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그 단위에서도 선후차적인 관계가 있게 된다.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차이는 둘째로, 의미-구조적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의미적측면에서 두개이상의 단어나 말뿌리들이 결합되는 경우 그 의미의 공고화정도에 따라 합성어와 단어결합을 갈라볼수 있다. 즉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결합된 결합단어가 문장론적단어결합인가 아니면 어휘

론적합성어인가 하는 기준은 어휘적의미의 단일성 즉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에 의하여 평가된다.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는 두개이상의 단어들에 결합되어 언어생활에서 오래 쓰이면서 그 의미가 일정한 정도로 공고화되어 이루어지는것을 말한다.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는 개별적단어들의 의미의 합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공고화정도가 낮은 단계의 합성어와 높은 단계의 합성어로 갈라볼수 있다.

합성어는 구조적측면에서 두개이상의 단어들에 어음변화없이 결합하는 경우에도 의미적측면에서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낮은 단계의 합성어와 높은 단계의 합성어로 갈라진다.

실례로 단어 《수수》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들인 《수수떡, 수수지짐, 수수엿, 수수짚, 수수밭, 수수대, 수수밥, …》등도 그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는 서로 다르다.

단어 《수수떡》의 의미는 《① 수수쌀을 갈아서 만든 떡. | 찰떡과 ~. ② 달아오른 얼굴. | ~같이 달아오른 얼굴》로 되어있다.

첫번째의미는 두 단어의 기계적인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두번째의미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의미이다. 첫번째의미가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낮은 단계라면 두번째의미는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높은 단계라고 볼수 있다.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만을 나타내는 합성어들은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낮은 단계의 합성어들이다.

실례로 단어 《보리》도 《가루, 가을, 겨, 겨떡, 길금, 고개, 논, 농사…》 등의 많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고있지만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는 서로 다르다.

여기서 《보리고개》는 《낡은 사회에서 : 햇보리가 날 때까지 넘기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가난한 농민들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식량사

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하다.》, 《보리자루》는 《빛을 내줄 때에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아주는것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서있기만 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뜻》으로 《꾸어다놓은 보리자루같다.》 쓰이고있다.

우의 실례에서처럼 같은 계열의 합성어인 경우에도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휘의 공고화가 실현된 합성어들은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성어(특히 학술용어)들은 여러개의 단어들에 결합하여 그 단어들의 의미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 마식령스키장, 유기질복합비료, …

합성어는 구조적측면에서 두개이상의 단어들에 어음변화를 일으키면서 결합한 경우에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높은 합성어로 된다.

같은 품사들이 결합하거나 서로 다른 품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어로 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말뿌리가 변화되면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높은 합성어로 된다.

예: -같은 품사인 경우

화살(활+살), 부나비(불+나비), 바느질(바늘+질), 써먹다(쓰다+먹다), 서너개(셋+넷)

-다른 품사인 경우

휘파람(휘+바람), 날파람(날다+바람), 모자라다(못+자라다)

이러한 합성어들은 언어실천에서 두개의 단어들에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높은 합성어라고 볼수 있다.

단어결합은 의미-구조적측면에서 볼 때 두개이상의 단어들에 결합하여도 합성어처럼 의미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한 그 구조적측면에서 어음변화를 하지 않

는다.

단어결합은 하나의 문장안에서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서로 각이한 결합관계를 나타내면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례: ① 어느 순간에 적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서남전선의 최남단최대열점지역 방어대에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 눈물속에 간절히 안녕을 축원하면서도 헤어지기 아쉬워 찬물속에 뛰어들어 오래오래 바래우고 따라서는 우리 군대와 군인가족들이다.

② 탄광에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선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군중문학통신원이 급강하탐측으로 줄달음을 놓으며 웨친다.

실례 ①에서 《최남단최대열점지역 방어대》는 《최남단최대열점지역인 방어대》로 쓸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단어결합이다. 그러나 《최남단최대열점지역 방어대》를 《최남단최대열점지역방어대》로 쓰면 《최남단최대열점지역》이 뒤에 오는 《방어대》를 규정하는 기능이 없어지므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규정어와 피규정어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결합으로 된다.

실례 ②에서는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는 하나의 합성어로 쓰이었다. 그러나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선》을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입선》으로 합성어를 만들어도 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하나의 합성어안에서 단어나 말뿌리의 개수를 최대한 8~9개까지도 허용할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위의 실례에서는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입선》보다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선》으로 하는것이 내용을 이해하는데서는 편리하다.

즉 합성어에 비하여 단어결합은 어휘적의미의 공고화정도가 낮은것으로 하여 여러개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각기 독자적인 성분적기능을 수행하므로 띄여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띄여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한 언어의식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단어결합은 두개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이지만 합성어와 달리 어음변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어결합에서는 매개의 단어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어음적측면에서 서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쓰이기 때문이다.

례: 합성어 단어결합
화살⇒활과 살
바느질⇒바늘과 실
안팎⇒안과 밖

단어결합은 매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쓰이며 결국 같은 단어들의 결합인 경우에도 띄여쓰기에 따라 합성어인가 단어결합인가를 구별할수 있다.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차이는 셋째로, 형태적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합성어와 단어결합이 두개이상의 단어나 말뿌리들과 결합하는 경우에 토나 덧붙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합성어나 단어결합은 다 여러개의 단어나 말뿌리로 이루어지지만 말뿌리외에 토나 덧붙이가 첨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우선 합성어나 단어결합은 다 토의 쓰임이 가능하지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합성어는 체언과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에만 토가 없이도 말뿌리들끼리 하나의 합성어를 이루고 서로 다른 품사들인 경우에는 토의 첨가를 전제로 한다.

례: -체언과 체언인 경우

백두산혁명강군, 흙모래밭, 공군무력건설

-용언과 용언인 경우

날아가다, 잡혀오다, 젊어가다

-용언과 체언인 경우

작은어머니, 큰집, 붉은기

이외에 부사, 감동사, 관형사는 토없이 결

합하여 합성어를 이룬다.

례: 오래오래, 빨리빨리, 아아

단어결합은 문장에서 두개의 단어들의 결합체로서 하나의 어울림관계를 나타내므로 토의 쓰임을 전제로 한다.

단어결합은 토에 의하여 문장에서 자기의 성분적기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단어결합은 문장에서 토를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지만 일정하게 띄여쓰고 또 때 단어들이 문장론적기능이 있으므로 하나의 합성어로 볼 수 없다.

례: 우리 인민은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조국통일대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

우의 실례에서 《우리 인민》은 토없이 하나의 단어결합을 이루었다면 나머지 단어결합들은 토에 의한 자기의 성분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합성어에서는 토가 단어조성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문법적의미를 상실하고 순수 련결의 기능만을 나타낸다면 단어결합에서는 두 단어사이에서 토들이 자기의 문법적의미를 가지고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수단은 같아도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또한 합성어나 단어결합은 두개이상의 말뿌리들의 결합으로서 순수하게 말뿌리만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덧붙이들이 첨가될수도 있지만 그 기능이 다르다.

합성어는 합침법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로써 일부 덧붙이들이 쓰이는 경우에도 하나의 단어안에서 쓰인다. 그러나 단어결합은 이러한 단어들의 서로 다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례: 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야외빙상장, 씨뿌리기, 군중문학통신원, 꽃절이김치, 꽃절이국, 꽃절이지지개
② 신정남은 이렇게 강조하고나서 김상규아바이더러 본답논물잡이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단어결합은 합성어를 자기의 수단으로 하는것만큼 합성어에 덧붙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구성재료로 하게 된다. 즉 합성어에 덧붙이들이 붙는가 붙지 않는가에 따라 단어결합은 합성어를 자기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합성어는 한 대상에 대한 의미만을 나타내는데 국한되는 단위라면 단어결합은 문장에서 의미-문법적어울림을 나타내는 단위인것이다.

이와 같이 합성어와 단어결합은 언어적단위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의미의 공고성정도 서로 다르고 그 기능도 서로 다르므로 언어실천에서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합성어와 단어결합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 폭넓게 하여 어휘론과 문장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